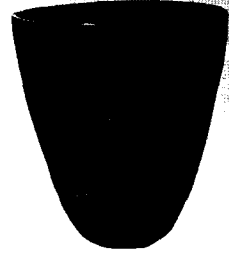


01

임상택
서울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선사시대의



토기

제1장 신석기시대의 토기

- I. 머리말
- II.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토기문화
- III. 경기도지역의 신석기시대 토기문화
- IV. 맺음말

제2장 / 청동기시대의 토기

- I. 머리말
- II.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토기문화
- III. 경기도지역의 청동기시대 토기문화
- IV. 맺음말

신석기시대의 토기

I. 머리말

한반도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빗살무늬토기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유적조사와 학술연구의 진전에 의해 한반도에도 빗살무늬토기 이외에 다양한 토기문화가 신석기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이 점차 알려지고 있으며 지역적인 양상도 드러나고 있다. 빗살무늬토기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존재했던 덧무늬토기, 덧무늬토기보다도 이른 시기로 생각되는 고산리식 무문양토기 등 이른 단계의 토기문화가 존재했음이 명확해지고 있으며,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한 금강식토기의 확인이나 이중구연토기의 분포범위 확대 등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신석기시대의 다양한 토기문화를 살펴보면서, 특히 경기도지역의 신석기시대 토기문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토기문화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최고(最古)의 토기는 최근 제주도 고산리유적에서 발견된 무문양의 토기이다.¹⁾ 태토는 모래질로, 태토에 식물체를 섞어 만든 것이 특징인데 소성과정에서 식물질은 타버리고 그 흔적이 토기표면에 남아있는 토기이다. 무문양이 주류이며 아가리에 찌르듯이 시문한 자돌문

1) 濟州大學校博物館, 1998, 『濟州高山里遺蹟』(圖版)

이 시문된 토기도 소량 존재한다. 기형은 바리, 깊은 바리, 대접의 형태가 확인되며 바닥은 평저가 주류이나 둥근저부도 소량 존재한다. 기존의 한반도 신석기시대 토기 중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토기로 현재는 제주도 고산리와 김녕리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고산리식토기'로 명명되었다. 일본 규슈(九州) 기원(起源)의 아카호야(アカホヤ) 화산재가 퇴적된 층의 하부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아카호야 화산재의 분출연대가 대략 6300BP 전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보다는 오래된 토기임이 명확하게 되었다. 토기의 특징으로 보아 일본 및 시베리아 일대에서 보이는 초창기의 토기와 유사한 점이 주목된다. 아직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본토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청도 오진리유적에서도 이와 유사한 토기가 용기문토기의 하층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고산리식토기와의 관련성은 현재로는 명확하지 않다. 이 시기는 고신석기단계에 해당한다.

고산리식 토기와 청도 오진리의 토기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는 덧무늬 토기이다. 덧무늬토기는 동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중심적으로 분포하며 영남내륙지역에서도 확인된다. 덧무늬토기는 대체로 평저가 일반적이며 그릇꼴은 바리, 깊은 바리의 형태가 주를 이루나 그 외 목단지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문양은 매우 다양하여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아가리와 저부쪽은 문양이 시문되지 않고 몸통부분을 중심으로 문양이 시문된다. 얇은 점토피를 아가리에 평행하게 배치한 평행용기문과 삼각집선, 사행집선 등 다양한 기하학적 문양을 몸통에 배치한 기하학적 용기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주요 유적으로는 남해안 일대의 동삼동패총, 범방패총, 연대도패총, 송도패총, 육지도패총, 신암리 등과 강원도 오산리유적, 거창 임불리유적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는 신석기조기단계에 해당한다.

덧무늬토기 다음 단계에는 동해안과 남해동부 일대를 중심으로 자돌문과 압인문을 시문한 토기문화가 발달한다. 토기의 표면을 찌르듯이 시문하거나(자돌문), 시문구를 눌러 시문한 토기, 짚고 굽은 침선으로 문양을 시문한 토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함경도에서 남해안에 걸쳐 확인되는 이 토기문화는 다음에 전개될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문화보다 선행하여 등장한다. 대체로 바리, 깊은 바리가 주를 이루며 소형의 호형토기도 이 시기의 특징적인 기형이다. 문양은 황주어골문, 점열문, 격자문 등이 많다. 남해안에는 압인문토기가, 동해안에는 압날문양을 시문한 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문양은 아가리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시문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 시기의 늦은 단계에 경기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중서부지역에서는 빗살무늬토기가 등장한다. 구연부에는 단사선문이나 점열문을 시문하고, 몸통에는 종주어골문을 시문하며, 저부에는 황주어골문이나 방사상문양을 시문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연부 문양은 주로 눌러서 시문하며 몸통과 저부는 그어서 시문하는 차이가 있다. 기형은 뽕족하거나 둥근

저부에 곧게 올라가는 몸통을 가지는데 마치 달걀을 절반 자른 형태와 유사하다. 이처럼 특징적인 기형과 문양은 다음 단계에 남부지역 일대에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함경도지역에서도 침선에 의한 빗살무늬토기가 유행하나 바닥이 평저인 점이 차이가 난다. 이 시기는 신석기전기단계에 해당한다.

다음 단계가 되면 한반도 전역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유행하게 된다. 지역별로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단사선문과 횡주어골문으로 대표되는 빗살문토기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동,서북지역에서는 평저토기전통이 지속되는 반면 대동강 이남, 원산만 이남 지역에서는 전시기에 중서부지역에서 등장했던 뾰족밑토기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이 시기의 뾰족밑 빗살무늬토기는 중서부지역에서는 저부문양이 사라지기도 하고, 동체부에 다치구에 의한 횡주어골문이 시문되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며, 대동강유역에서는 부위별로 다른 문양을 시문하는 전통이 붕괴되고 전면(全面)에 두 가지 문양을 교대로 시문하는 토기(금탄리Ⅰ식토기)가 등장하기도 한다. 반면 남부지역에서는 구연부에 밀집 단사선문을 시문하고 동체부에는 굵은 침선을 시문한 태선문토기가 유행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그릇꼴이나 문양시문에서는 강한 공통성이 확인된다. 이 시기는 신석기중기단계에 해당한다.

신석기 후기단계 이후로는 각 지역에서 빗살무늬토기가 변형, 퇴화되는 과정을 밟는다. 후기단계에 동,서북지역에서는 번개무늬, 단추무늬 등 새로운 문양이 등장하거나 문양이 소략해지며 서북지역에서는 긴 목이 달린 토기가 유행하기도 한다. 중서부지역에서는 금탄리Ⅱ식토기 및 서해안식토기로 대표되는, 전면에 횡주어골문을 시문한 토기가 유행하는 가운데 문양이 소략해지고 무문양토기가 급증한다. 남부지역에서도 문양의 종류가 격자문, 능형집선문 등으로 단순화되고 구연부 위주로 문양시문범위가 한정되는 등 문양면에서 현저히 퇴화된 모습을 보인다. 기형에서도 외반구연이 많아지는 변화가 나타난다. 저부도 전단계의 뾰족밑보다는 더 둥글게 변화하여 원저 형태를 띠는 것이 많아진다. 또한 구연부를 이중으로 겹싼 이중구연토기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무문화의 경향이 뚜렷하나 전기단계부터 유지되던 납작밑과 뾰족(둥근)밑토기전통의 구분은 계속 유지된다. 이 시기는 신석기 후기 및 만기단계에 해당한다.

III. 경기도지역의 신석기시대 토기문화

1. 주요유적과 유물

경기도지역에서는 80여 개소의 적지 않은 신석기시대 유적이 알려져 있지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성격이 파악된 유적은 의외로 적다. 서울의 암사동유적을 포함하여, 하남시 미사동유적, 연천군 삼거리유적, 서해안의 시도패총 및 오이도패총, 별망패총, 연평도패총, 영종도 송산 및 눌들유적, 삼목도 유적 등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이다. 발굴된 유적을 중심으로 경기도지역의 신석기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적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미사동유적

유적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구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미사리)에 위치하고 있다. 1961년 故김원용 선생님이 빗살무늬토기유적으로 보고하면서 학계에 처음 소개되었다. 그 이후 몇 차례의 지표조사와 정식조사(1980년, 1987~1992년 대학연합발굴)가 이루어지면서 미사동유적이 신석기 - 백제시대에 이르는 유적임이 밝혀지게 되었다.²⁾

미사리출토 빗살무늬토기는 대부분 전면에 문양을 시문한 것으로 아가리에는 주로 단사선문이나 점선열문, 손톱무늬 등이 시문되며, 몸통에는 종주 또는 횡주의 생선뼈무늬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외에 사격자문, 사선대문 등도 소량 존재한다. 아가리와 몸통의 문양 사이에는 중호분, 격자문 등의 어깨문양을 끼워넣기도 한다. 저부는 문양이 시문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체로 방사상의 문양을 시문한다. 이러한 토기의 양상은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의 전기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미사리에는 이외에도 중기단계로 생각되는 금탄리I식토기편도 출토되고 후기단계로 보이는 서해안식의 퇴화된 횡주어골문도 보여 유적의 점유시기폭이 상당히 길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암사동유적³⁾

암사동유적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153-157번지 일대의 강안(江岸) 충적대지상에 위치하는 대규모 취락유적이다. 1925년의 을축년(乙丑年) 대홍수로 인해 유물이 다량으로 지표에 드러남으로써 처음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이후 여러차례의 조사결과⁴⁾ 많은 수의 주거지가 존재하는 주거유적임이 확인되었으며 1979년 사적267호로 지정되었다. 출토되는 유구 유물의 양이나 유적면적에서 중서부지역 최대의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2) 金元龍 1961, 「廣州 漢沙里 櫛文土器遺蹟」, 『歷史學報』 14.

金鍾敏 1967, 「廣州 漢沙里 櫛文土器에 대한 小考」, 『韓國考古』 1.
漢沙里遺蹟發掘調査團 1994, 「漢沙里」 I-V.

3) 암사동유적은 행정구역상 서울에 속하지만 미사동유적과 인접해있고, 문화적으로도 거의 동일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서술한다.

암사동유적은 표토 아래 3개의 문화층이 존재하는데 최하층(제1문화층)에서는 현재까지 총 28기의 움집터가 조사되었으며 기타 적석유구, 다량의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 제2문화층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제3문화층에서는 백제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암사동의 움집들은 말각방형 또는 (타)원형의 평면형태를 가지며 내부 중앙에 돌을 돌려 만든 화덕자리가 있다. 토기는 미사리유적과 매우 유사하여 전면에 문양을 시문한 것이 많다. 문양은 아가리에는 단사선문, 점선열문, 손톱무늬 등이 시문되며 몸통에는 종주 횡주의 생선뼈무늬가 시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부는 문양이 생략되거나 방사상의 문양이 시문된다. 암사동유적에서는 1999년 조사에서 금탄리1식토기가 거의 원형으로 출토되어 미사리유적과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점유된 유적이 확인되었다.

다. 삼거리유적

삼거리유적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722-2번지 임진강변 자연제방상에 위치한다. 1996년 집중호우시 유물이 다량으로 노출되어 처음 알려졌다, 1999년 다시 집중호우로 단애면이 노출되며 주거지가 발견되어 경기도박물관에 의해 긴급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⁵⁾

유적의 층위는 총 3층으로 나뉘는데 표토층인 I층 아래에 청동기시대문화층인 II층이, 그 아래에는 신석기시대문화층인 III층이 퇴적되어 있다. III층은 암황색모래층으로 신석기시대주거지의 상부에 퇴적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생토층인 황색모래층과 황색점토층이 자리잡고 있다.

움집은 평면형이 원형에 가까운 말각방형이며 대형도 있지만 대체로 한 변 4m 내외의 소형이다. 내부 중앙에는 돌을 둘러 화덕자리가 설치되었다. 출토된 토기는 전면에 문양을 시문한 것으로 대체로 암사동이나 미사리유적의 이른 단계와 유사한 양상이다. 문양은 아가리에는 단사선문을, 몸통에는 종주의 생선뼈무늬를 시문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이빨이 여러 개인 시문도구로 문양을 시문한 다치의 황주어골문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종주어골문 위주로 몸통문양이 구성된 것으로 보아 현재로는

4) 암사동유적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1971~1975년에 걸쳐 4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83~1984년 서울대학교에 의해 유적공원조성을 위한 긴급발굴조사가, 1999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유적전시관 확충을 위한 구제발굴이 이루어졌다.

金元龍, 1962, 「岩寺里遺蹟의 土器 石器」, 『歷史學報』17 · 18

任孝宰, 1985, 「岩寺洞」

國立中央博物館, 1994, 「岩寺洞」

國立中央博物館, 1999, 「岩寺洞」

5) 경기도박물관, 1999, 「연천삼거리유적 발굴조사개보」, 현장설명회자료.

중서부지역의 가장 이른 단계의 유적으로 생각된다. 임진강유역에서는 처음으로 발굴조사된 집자리 유적으로 대동강유역과 한강유역의 문화교류양상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라. 시도패총

시도패총유적은 경기도 용진군에 위치한다. 대안에는 강화도 동막동유적이 마주하고 있다. 시도에서는 모두 4기의 패총이 조사되었으나 이 중 3기가 신석기시대의 패총이다. 1970년 국립박물관에 의해 조사되었다.⁶⁾ 제1지구 패총은 3기의 패총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커서 15×20m의 범위에 패각층이 분포하며, 표토를 제외하면 두께 50cm 가량의 순패각층과 그 아래의 검은색 부식토층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층위양상이다.

토기는 위에 살펴본 암사동, 미사리 등지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중서부지역의 구분계빗살무늬토기도 존재하지만 단치구나 다치구를 이용해 횡주의 생선뼈무늬를 동체부 중심으로 시문한 서해안식토기(시도식)들이 주류를 이룬다.

제2지구 패총은 평면범위가 직경 약 10m 가량으로 층위는 표토 아래 두께 약 30~60cm의 순패각층이 있고 그 아래에 부식토층이 형성된 양상으로 기본적으로 제1지구 패총층위와 동일하다. 이 곳에서는 1지구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토기가 암사동식의 구분계빗살무늬토기이고 일부 서해안식토기가 출토된다. 구분계빗살무늬토기는 구연부에 단사선문이나 손톱무늬를 시문하고 몸통에는 다치구로 횡주어골문을 얇게 시문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제1지구 패총과는 중심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3지구 패총은 일부만 조사되어 범위파악은 어려우며, 표토 아래에 순패각층이 40cm 가량 퇴적되어 있고 그 아래에 부식토층이 형성되어 있다. 출토된 토기는 구분계빗살무늬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양은 주로 단치구로 시문한 횡주어골문이 많다. 시도패총은 서해안 일대에서는 처음으로 정식발굴조사된 패총유적으로 중서부내륙지역과는 다른 서해안지역의 토기문화를 파악하는데 큰 기여를 한 유적이다.

마. 오이도패총

오이도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하는데 현재는 개발로 인해 섬의 상당부분이 파괴되었고,

6) 韓炳三, 1970, 『矢島貝塚』, 국립중앙박물관

갯벌의 매립으로 연륙되어 있다. 1960년 윤무병 박사에 의해 안말패총유적이 학계에 처음 소개된 이후 여러 차례의 지표 및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통해 오이도지역의 패총유적에 대한 성격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⁷⁾ 오이도에는 섬을 돌아가며 많은 수의 패총이 알려져 있다. 북부패총군(안말패총, 뒷살막패총, 소래벌패총), 서남부패총군(가운데살막패총), 남부패총군(신포동패총)이 그 것인데, 이 중 신포동패총, 가운데살막패총, 뒷살막패총은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조사되었다. 현재는 북부지역패총군만이 잔존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파괴되었다.

신포동패총은 1988년 조사되었는데 3곳의 패총을 확인하였으나 A패총은 조사전에 유적 중심부가 파괴되어 유물도 거의 없고 유구도 남아있지 않았다. A패총에서 동북쪽으로 20여m 떨어져 위치하는 B패총에서는 모두 10개의 서로 다른 패각덩어리가 중첩되어 확인되었다. 규모는 큰 것은 12×4m, 작은 것은 6×4m정도이다. 패각층의 두께는 약 30~40cm로 개별 패각층은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다.

토기는 전체적으로 위에 설명한 시도1지구 패총과 양상이 유사하다. 전형적인 구분계의 빗살무늬토기도 존재하는 반면, 서해안식의 횡주어골문토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석기 및 골각기는 매우 빈약하여 돌화살촉, 간돌도끼, 굴따는 석기, 뼈화살촉만이 출토되었다. 신포동C패총은 A패총에서 서쪽으로 300m가량 떨어져 있는데 정식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파괴된 단면에서 유물이 확인되었다. 토기는 구분계의 단사선문+중주어골문이 시문된 토기와 서해안식 횡주어골문토기가 모두 출토되었다.

서남부패총군에 해당하는 가운데살막패총은 1988년 서울대학교박물관, 명지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지표조사시 확인되었으며 1999년 발굴조사되었다. 패총은 가, 나, 다 3곳의 패총으로 나뉜다. 가, 다패총은 이미 중심부가 파괴되어 토기양상을 잘 알 수 없었으나 나패총은 패각층이 잘 남아 있었다.

나패총은 표토를 포함해 5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토 아래에는 재퇴적된 것으로 보이는 혼토패층(II, III층)이 있고 그 아래에는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는 순패층(IV)과 혼토패층(V층)이 존재하는데 V층은 상면에만 패총이 얇게 분포하는 부식토층으로 당시의 구지표로 볼 수 있다. V층 상면의 순패층(IV층)은 평면상에서 구분되는 총 12개의 서로 다른 소규모 패각덩어리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7) 尹武炳, 1978, 『烏耳島貝塚』, 『考古美術』, 1-4.
任孝宰·朴淳發, 1988, 『烏耳島貝塚』, 서울대학교박물관
明知大學校博物館, 1988, 『始華地區開發事業區域地表調査』
서울대학교발굴조사단, 1999, 『오이도가운데살막패총 발굴조사개요』, 현장설명회자료.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오이도 뒷살막패총 시굴조사 익보고』

서로 겹치지 않게 분포하고 있으며 규모도 매우 작은 편이다.

토기는 구분계빗살무늬토기가 주류를 이루는데 아가리에는 손톱무늬, 단사선문, 점열문 등을 시문하고 몸통에는 종주, 횡주의 생선뼈무늬를 시문한 것이 대부분이다. 다패층은 나패층과 소계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패층으로 이미 패각층은 모두 파괴된 상태였으며 패각층 아래 부식토층에서 3기의 간이음집터가 조사되었다. 다패층에서는 서해안식횡주어골문토기가 소량 출토되었다.

북부패층군에 해당하는 뒷살막패층은 2000년에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시굴조사되었다. 패층의 범위는 50×40m로 큰 편이며 패각층 두께도 40~150cm 가량으로 두텁게 퇴적되어 있다. 최하층인 부식토층과 그 상부의 순패층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며, 그 위층들에서는 백제토기 및 후대토기들이 출토된다. 유물로는 소량의 빗살무늬토기와 석기들이 출토되었는데, 토기는 퇴화된 형태의 구분계빗살무늬토기, 무문양토기 등이 출토되었고 석기는 갈돌, 갈판, 홈돌, 돌도끼편 등이 출토되었다. 오이도에서는 이와 같이 다수의 지점에 패층이 형성되어 있고 그 시기도 신석기 전기 - 후기에 걸치는 오랜 기간을 점하고 있다. 서해안 일대에서는 가장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서해안 신석기시대 패층을 대표하는 유적이다.

바. 초지리(별망)패층

경기도 안산시 군자면 초지2리에 위치하는 초지리(별망)패층은 1974년 발굴조사되었다.⁸⁾ 바닷가에 면한 아산의 경사면에 위치한다. 유적의 층위는 표토 아래 패각층이 있고 그 하부에 부식토층이 퇴적되어 있는 간단한 퇴적양상이다. 부식토층 상면과 패각층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으나 패각층에서는 원삼국시대유물이 혼재하고 있어 교란된 것으로 판단된다. 토기는 일부 구분계 빗살무늬토기도 있으나 대부분 서해안식의 횡주어골문, 사선대문, 격자문이 시문된 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문양은 구연에서 약간 내려와 시문되고 저부에는 시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서해안식토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사. 연평도패층

연평도패층은 경기도 옹진군에 위치한다. 연평도에서는 여러 차례의 조사결과 총 16개소의 패층이

8) 金元龍, 1979, 「草芝里(別望)貝塚 發掘調査報告」, 『韓國考古學報』7

확인되었는데⁹⁾ 각 지점에 따라 시기를 달리하는 유물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2000년 및 2001년에 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소연평도의 패총이 발굴조사되었으나 미보고이며 나머지 패총들은 정식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지점의 양상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 수습된 유물들을 통해 보면 연평도에는 두 가지 문양을 교대반복시문하는 금탄리Ⅰ식토기도 나타나며 동일문양을 기전면에 시문하는 금탄리Ⅱ식토기, 다치구에 의해 동체부 중심으로 문양을 시문하는 서해안식토기 등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구분문계 빗살무늬토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연평도는 중서부지역 중기단계 이후에 주민의 점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 영종도 늘들유적(젓개마을)

영종도 늘들유적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산155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영종도의 남서지역에 위치하며 바다를 면한 해발 20~50m 정도의 낮은 구릉사면과 정상부에 걸쳐있다.¹⁰⁾ 서해안 대부분의 유적이 패총유적임에 비해 늘들유적은 패총이 아닌 주거유적이다. 늘들유적에서는 구릉 정상에서 대형의 회자형 방형구(回字形 方形溝) 1기와 그 내부에 있는 야외노지 1기, 소형수혈 9기가 확인되었고, 구릉경사면에서는 주거지 3기, 야외노지 3기, 소형수혈 18기가 조사되었다. 유적의 하단부에서는 소형야외노지 1기, 중복된 방형주거지 2기가 조사되었다.

토기는 대부분 단치의 횡주어골문이나 격자문을 시문한 것이며 기타 아가리에 점열문이나 조문을 시문하고 몸통에 횡주어골문을 시문한 구분계의 문양이 소량 존재한다. 또한 금탄리Ⅰ식토기도 소량 출토되었다. 토기문양에서 구분문계의 토기가 소량에 불과하고 전면에 단치횡주어골문을 시문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 문양이 정연하고 다치횡주어골문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신석기 후기의 이른 단계나 중기후반으로 소급될 수 있는 유적이다.

자. 영종도 송산유적

영종도 송산유적은 영종도의 남동부에 위치하며 바로 바다에 인접해 있는 모래사장 위에 형성되어 있다. 1995~1996년에 걸쳐 서울시립대학교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는데 야외노지만 무려 21기가 조사된 특이한 유적이다.¹¹⁾ 야외노지는 대부분 원형으로 할석을 한두벌 깔아 만든 시설이다.

9) 崔夢龍 外, 1981, 「白翎·延坪島의 櫛文土器遺蹟」, 『韓國文化』 3

10) 임효재·양성혁, 1999, 「영종도 늘들 신석기유적」,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 金秉模 外, 1999, 「永宗島 文化遺蹟」, 漢陽大學校(博物館叢書 第33輯.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단치구로 시문한 동일계횡주어골문토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외에 다치구로 시문한 횡주어골문토기도 일정량 존재한다. 아가리에 단사선문이나 손톱무늬를 시문하고 몸통에 종주, 횡주의 생선뼈무늬를 시문한 구분계토기는 매우 소량이다. 송산유적에서는 소위 금강식토기 편도 출토되어 충청내륙지역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차. 삼목도유적

삼목도유적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하며 삼목도I유적과 삼목도II유적의 두 군데에 유적이 존재한다.¹²⁾ 삼목도 I유적은 섬의 남서쪽 해안가 백사장에 위치한다. 야외노지만이 18기 확인되어 영종도 송산유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토기는 매우 조잡하게 시문된 단·다치의 횡주어골문과 무문양이 주류이며 격자문, 사선대문 등도 있다. 유적의 입지와 유구의 성격으로 보아 영종도 송산유적과 동일한 성격의 유적으로 생각된다.

삼목도II유적은 섬의 동북쪽 해안가 구릉상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구석기시대 고토양층이 확인된 반면 신석기시대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¹³⁾ 빗살무늬토기와 석기만이 소량 출토되었다. 토기는 구분계의 단사선문+다치횡주어골문토기나 격자문토기가 있으며 석기는 소형의 간돌도끼, 돌그물추, 갈돌 갈판 등이 출토되었다.

이상에서 경기도 일대의 주요한 신석기시대유적들을 살펴보았다. 경기도지역에는 이외에도 많은 수의 신석기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기도지역에서 알려진 신석기유적은 80여 개소인데 이중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극히 드문 형편이다. 경기도 지역의 신석기유적은 그 분포상으로 보아 섬과 해안의 저지대 및 구릉상에 위치하는 패총, 주거유적, 야외노지단순유적과 강변의 충적대지상에 위치하는 주거유적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으로 해안지대에서의 주거유적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내륙에서는 한강 중상류지역에서의 늦은 시기의 취락유적을 찾는 것이 경기도 일대 및 나아가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2. 토기문화의 전개 및 특징

경기도 지역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신석기시대에도 서북지역과 남부지역을 문화적으로

11)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1996, 『영종도 송산선시유적』, 학술총서 제3집.

12) 任孝宰외, 1998, 『인천국제공항 문화유적 2차발굴조사최종보고서』,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

13) 유적이단부에서 소토가 집중되어 있는 원형의 노지가 1기 노출되었으나 신석기시대 유구인자는 불분명하다.

매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경기도 지역의 빗살무늬토기는 한반도 신석기 전기단계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아직까지 신석기 초기의 덧무늬토기단계나 그 이전의 고신석기단계의 토기문화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 중서부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다면 앞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중서부지역에서도 현재의 빗살무늬토기보다 더 이른 단계의 신석기문화가 발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경기도 지역은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토기문화를 특징에 따라 구분할 때 중서부지역군에 속한다. 중서부지역이란 평안남도, 황해도를 포함하는 서북한지역과 서울, 경기지역의 내륙과 해안지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중서부지역이 내적인 토기문화의 공통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공통성은 뾰족밑으로 대표되는 토기기형, 토기의 부위별로 다른 문양을 시문하는 구분계시문양상, 점열문, 단사선문, 손톱무늬, 종주어골문, 횡주어골문 등 토기문양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토기 이외에 석기 및 집자리구조에서도 강한 공통성이 확인된다.

중서부지역에서 가장 이른 토기문화는 황해도 봉산 지탑리 1지구 1호주거지, 평안남도 용강군 공산유적, 경기도 연천군 삼거리유적 등에서 보이는 구분계 빗살무늬토기이다. 구연부에는 점열문이나 단사선문, 손톱무늬를 주로 시문하고 몸통에는 종주어골문이 중심이 되며 저부에는 횡주어골문이나 방사상문양을 시문하는 것이 이 시기 토기문양의 특징이다. 기형은 뾰족밑의 깊은 바리가 중심이 되며 소형토기에는 무문양, 평저토기도 존재한다. 황해도, 평안남도 지역에서는 곧이어 점열로 타래무늬를 시문하거나 곡선적인 문양을 시문하는 특징이 추가되어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 암사동, 미사리 등 한강유역에서도 유사한 문양이 등장하면서 빗살무늬토기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된다. 한강유역의 빗살무늬토기는 종주어골문도 물론 존재하지만, 횡주어골문이 몸통의 주요문양으로 유행한다는 점이 대동강유역과 차이를 보인다. 어쨌든 이 시기 중서부지역 토기의 가장 큰 특징은 문양이 토기 전체에 정연하게 시문된다는 것이다. 경기도 지역에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연천 삼거리유적, 하남 미사리유적, 동막동유적, 오이도 가운데살막패총, 서울 암사동유적 등으로 한강내륙지역과 서해안 지역 모두 이 시기 토기문화가 확인된다. 한반도 전체편년상 신석기전기의 늦은 단계에 해당한다.

중서부지역에서 다음 단계가 되면 대동강유역과 한강이남지역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토기문화의 전개양상이 나타난다. 대동강유역에서는 전단계의 구분계빗살무늬토기가 퇴화하는 대신 두 가지의 문양을 교대로 반복시문하는 금탄리I식토기문화가 등장하며 한강이남에서는 구연부에 단사선문을 시문하고 동체부에는 다치구로 횡주어골문을 시문하는 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저부는 무문인 경우가 많다. 한강 이남에서는 이 시기에 동체부문양도 생략되고 구연부에 단사선문만 시문하는 토기도 등

장, 유행하게 된다. 한반도 전체편년상 중기단계에 해당한다.

중서부지역의 신석기후기단계는 현재로는 대동강유역과 서해안일대를 중심으로 그 양상이 알려져 있고, 한강내륙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양상이 명확하지 않다. 대동강유역에서는 금탄리Ⅱ식토기로 대표되는 토기전면에 횡주어골문을 시문한 토기, 무분양토기가 중심이 되고, 서해안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동체부를 중심으로 횡주어골문을 시문한 토기가 중심이 된다. 대동강유역에서는 금탄리, 남경유적이 대표적이며, 경기도지역에서는 서해안 일대의 오이도 신포동, 뒷살막패총, 시도패총[지구 등 제패총유적이 대체로 이 시기에 해당한다. 후기에서도 이른 단계에는 단치구에 의한 횡주어골문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시문양상도 비교적 정연한 데 반해 늦은 단계에는 단치구에 의해 스킨치듯이 찰과상으로 횡주어골문을 시문한 토기가 많아지며 분양의 정연함도 많이 떨어져 퇴화된 느낌을 지을 수 없다.

3. 경기지역 빗살무늬토기문화의 위치

경기지역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 한반도 토기문화중에서도 강한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뿔족밑을 가진 기형은 이 시기에 압록강이나 두만강유역 등 동,서북지역과 중국의 동북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형이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도 중서부지역의 토기문화영향이 미치지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기형이다. 이처럼 독특한 기형을 가진 토기문화는 대동강 및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신석기중말단계까지 계속 유지된다. 그런 가운데 중기단계에는 남부 및 강원도지역으로 분포범위를 넓혀 동서북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서부지역의 토기문화가 전개된다. 이와 같이 중서부지역의 토기문화가 한반도의 넓은 지역에 걸쳐 퍼지게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배경에는 중서부지역의 지리적 특징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큰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넓은 충적대지와 산지, 생산성이 높은 서해안을 끼고 있는 환경 등이 중서부지역의 신석기인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며 남부지역으로 이들의 문화가 확대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황해도 지탑리유적에서 발견된 탄화된 조(또는 피)나 황해도 마산리 유적, 평양 남경유적의 조, 지탑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유역과 한강유역에서 발견되는 보습류 등의 석기 등은 신석기시대의 농경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데, 중서부지역의 신석기시대 농경은 사회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안정된 사회를 바탕으로 남부지역으로의 문화의 확산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남부지역에서는 중서부지역보다 한단계 늦은 신석기 후기단계

부터 농경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기지역은 이와 같이 중서부 신석기문화의 확산에 있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동기시대 이후에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문화매개 역할을 계속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의 신석기토기문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는 경기지역은 신석기시대 토기문화에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한반도 남부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한반도 신석기시대 토기문화를 대표하는 빗살무늬토기문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지식은 미약한 편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유적조사와 연구를 통해 신석기시대 토기문화의 전개양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2

청동기시대의 토기

I. 머리말

일반적으로 청동기시대라 하면 신석기시대와 달리 문자사용, 야금술, 잉여생산, 장인의 등장, 관개 기술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새로운 사회변화가 일어난 시기로 도시 및 문명, 국가가 등장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이와 동일한 기준의 적용은 어려우며 대체로 청동기의 제작 및 사용 시기를 청동기시대라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청동기시대는 청동기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사회변화(무문토기의 등장, 농경의 확산, 청동기의 사용 등)가 나타나는 시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무문토기의 등장과 더불어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증거는 빈약하지만 한반도에서는 무문토기의 등장시기를 청동기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문토기는 한반도에서 청동기 및 초기철기시대에 걸쳐 사용되는 토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만을 살펴보고자 하며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무문토기(점토대토기 및 흑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II.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토기문화

한반도의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위에 지적한 대로 무문토기라 할 수 있다. 무문토기는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는 달리 토기전면에 문양을 시문한 것은 찾아볼 수 없으며 구연부에 한정

하여 공열문이나 사선문, 거치문 등을 일부 시문한 토기들과 전혀 문양이 시문되지 않은 무문양토기가 여기에 포함된다. 무문토기는 빗살무늬토기에 비해 다양한 기종이 등장하고 지역에 따라 형태와 기종 구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 지역성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한반도의 무문토기문화를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서 토기문화의 흐름을 알아보려고 한다.

동북지역의 토기문화는 공열토기, 화분형토기 및 마연토기 등으로 특징지워지는데 공열토기는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 팽이형토기문화지역을 제외하고는 한반도 거의 전역에서 출토되며 무문토기를 대표하는 토기 중의 하나이다. 공열토기는 토기의 구연부를 돌아가며 구멍을 일렬로 배치한 독특한 문양을 가진 것으로, 실제로는 안팎을 맞췄을 경우는 적고 주로 안에서 밖으로 반쯤 밀어내어 외양이 불룩하도록 문양을 넣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공열토기는 동북지역에서는 이미 신석기시대 말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대체로 발형 또는 심발형의 기형을 가진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동북지역에는 화분형토기로 불리는, 문양이 없고 구연부가 밖으로 벌어진 심발형의 무문토기가 일반적인 토기로 알려져 있으며 공열문을 시문한 토기는 수량적으로는 적다. 적색마연토기 또한 이 지역에서 일찍부터 등장한 것으로 토기표면에 산화철을 입혀 마연한 토기로 일반 무문토기에 비해 태토가 정선되고 기벽이 얇은 특수토기라 할 수 있다. 적색마연토기는 중서부 이남지역의 무문토기문화에서도 중요한 토기의 하나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갈색마연토기도 동북지역의 특징적인 토기로 주로는 발, 완 등 각종 소형토기들을 중심으로 표면을 마연한 갈색마연토기가 유행한다. 이외에도 동북지역에는 굽다리토기, 꼭지형손잡이가 달린 토기 등 다양한 형태의 토기들이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로 사용되었다.

요동과 압록강 일대를 포함하는 서북지역에서는 주로 요동지역의 토기문화를 중심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원전 2000년기 전반기에는 신석기시대의 특징을 가진 채색토기와 새김무늬토기가 점차 사라지고 무문토기와 흑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에 들어서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동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팽이형토기가 무문토기로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 지역은 팽이형토기문화권의 중심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팽이형토기는 구연부를 이중으로 겹싸고 이중부를 사선이나 거치문 등의 간략한 문양으로 장식한 토기로 동체부는 부푼 형태이고 저부가 3~5cm로 매우 작은 특징적인 토기이다. 팽이형토기는 심발형의 기형이 일반적이거나 목이 달린 호형토기도 있으며 북한에서는 이를 변형팽이형토기라 부른다. 팽이형토기는 북으로는 청천강유역, 남으로는 강화도에 이르기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그 이남지역에서는 팽이형토기의 변형으로 생각하는 가락리식토기가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지역 무문토기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문화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어 명확한 시간적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충청이남지역에서는 이른 시기에는 한강유역과 마찬가지로 공열토기문화와 혼암리식토기문화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가락리식토기문화는 충청지역과 경상지역 일부에 국한되어 분포하고 있어 공열토기문화보다 제한적인 분포를 보인다. 중기단계가 되면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남부지역 전역에 송국리식토기문화가 퍼지게 된다. 송국리식토기는 전단계의 공열토기나 팽이형토기, 혼암리식 토기 등에 주로 보이던 심발형토기들과는 달리 구연부가 외반하고 동체부가 부푼 형태를 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소형의 발이나 완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토기들이 이와 같은 외반구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 단계의 남부지역 중심적인 토기문화의 하나로 자리잡는다. 남부지역에는 이와 함께 원형수혈 중앙에 타원형수혈과 2개의 기둥구멍을 기본특징으로 하는 송국리형주거지가 널리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다음 단계가 되면 송국리형토기와는 계통을 달리하는 원형점토대토기가 중부지역 이남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에는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송국리형토기와 원형점토대토기가 동일주거지에서 공반하는 예들이 조사되고 있어 외래적인 점토대토기문화와 재지적인 송국리형토기문화의 접촉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강유역에서는 송국리형토기문화가 나타나지 않고 바로 원형점토대토기가 등장하고 있어 공열토기문화가 늦게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무문토기문화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나가지만 원형점토대토기 단계가 되면 남한 전역에서 동일한 토기문화권이 형성되며 초기철기시대 문화가 개화된다.

III. 경기도지역의 청동기시대 토기문화

1. 주요유적과 유물

가. 미사리유적

미사리유적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일대에 위치한다. 신석기시대유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1987~1992년에 걸쳐 대규모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신석기시대에서 백제에 이르는 장기간의 다양한 유적들이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유구로는 주거지 37기, 소형저장공 34기, 고상식식물과 책렬(柵列)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출토된 토기의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문양면에서 공열문, 사선문, 구순각목

등의 요소가 단독, 또는 복합되어 시문되고 있고 이들이 주거지에서 공반하여 출토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형은 대체로 직립하거나 내만한 심발형이 주류를 이룬다. 이외에 아무런 장식이 되어 있지 않은 무문토기로 직립하거나 외만한 목을 가진 호형토기와, 소형토기로 발, 완류 등이 있다. 이들과 함께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되는데 기형은 일반적인 원저호의 형태와 통형굽의 두형토기 두가지가 있다. 적색마연토기원저호와 기형은 같지만 갈색을 띠는 갈색마연토기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토기양상은 혼암리유적과 유사한데, 주거지도 장방형평면에 수혈식노지시설을 가진 형태여서 공통된다. 이와는 달리 평면방형에 가까운 주거지 내부에 판석을 이용해 바닥을 깔고 주변을 긴 돌로 둘러싼 화덕이 있는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이 주거지 내부에서는 돌대(각목)문 토기가 출토되어 돌대문토기 주거지로는 최초의 조사례가 되었다. 앞 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돌대문토기는 현재 공열문계 토기문화보다 선행한다는 견해와 후행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역삼동유적

역삼동유적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며 세장방형의 주거지가 조사된 유적이다. 주거지에서는 공열토기와 구순각목이 시문된 토기와 직립구연의 호형토기, 홍도 등이 출토되어 한강유역에서 공열토기문화의 주거지로서는 처음 확인된 유적이다. 토기문화에서 서북한계통의 팽이형토기문화가 섞이지 않은 순수공열토기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지의 형태, 토기 및 석기의 유형에서 유사한 유적들이 이후에 한강 이남지역에서 많이 조사되었으며 이들은 역삼동 유형이라 불린다.

다. 고강동유적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하는 고강동유적은 1996~1999년 발굴조사되어 청동기시대 전기의 무문토기 주거지가 조사된 유적이다. 유적에서는 현재까지 총 12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주거지는 모두 장방형 혹은 세장방형으로 내부에 노지가 있는 경우는 모두 수혈식노지를 가진 것이다. 출토된 토기는 구순각목과 공열문이 시문된 심발형, 발형토기 위주이며 직립한 목을 가진 호형토기도 존재한다. 서북지역적인 요소인 이중구연이나 사선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소위 역삼동유형에 해당하는 토기양상이다. 유적에서는 공열토기와 함께 원형점토대토기가 소량 출토되었으나 공열토기와의 공반관계는 현재로는 불확실하다. 유적에서는 방형의 적석시설과 이를 둘러싼 환구시설이 구릉 정상부에서 조사되었는데 이 유구는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공열토기주거지와와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다.

라. 교하리유적

교하리유적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에 위치하며 2기의 주거지와 고인돌이 조사되었다. 고인돌에서는 반달돌칼 이외에는 별다른 유물을 찾지 못하였으나 주거지에서는 공열토기를 비롯한 마제석촉, 대팻날 등의 유물을 확인하였다. 주거지는 세장방형에 수혈식노지, 3열의 기둥구멍, 배수로 등이 있는 구조로 인접한 옥석리, 당하리유적과 유사하다. 공열토기 이외에는 발견되지 않아 역삼동유형의 유적으로 생각된다. 2호 주거지 퇴적토에서는 빗살무늬토기도 출토된 바 있다. 옥석리유적과 함께 이미 1960년대에 발굴조사되어 무문토기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유적이다.

마. 당하리유적

당하리유적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에 위치하며 주거지와 고인돌이 함께 조사되었으며 인근의 다울리에서도 고인돌이 조사된 바 있다. 역시 인근에 위치하는 교하리에서는 고인돌과 무문토기 주거지가 조사된 바 있어 당하리, 교하리, 다울리는 크게 보면 동일지역의 유적군이라 할 수 있다. 주거지는 1기 조사되었으나 조사면적이 적어 주변에 주거지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지는 세장방형이며 3개의 수혈식노지가 있다. 토기는 심발형의 공열토기와 직립, 외반의 호형토기가 주요구성이다. 호형토기 중에는 구순각목이 시문된 토기도 있다. 주거형식이나 토기 등에서 교하리, 옥석리와 거의 동일시기로 판단되며 역삼동유형의 전형적인 유적이다.

바. 가락동유적

가락동유적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다. 1963년에 고려대학교에 의해 조사된 1기의 장방형 주거지에서는 구연부를 이층으로 겹싸고 사선문을 시문한 심발형토기와 직립구연의 호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당시 가락식토기로 명명되어 현재도 토기형식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1975년에 잠실지구 유적조사단에 의해 조사된 지역에서는 총 5기의 주거지 가운데 1, 5호 주거지에서 공열토기가 출토된 바 있다. 가락식토기는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팽이형토기의 남부지역 변화형으로 이해해 왔으나 최근에는 청천강 이북지역의 이층구연을 가진 토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사. 강화 삼거리유적

인천시 강화군 신집면에 위치하는 삼거리유적은 고인돌과 주거지가 함께 조사된 유적이다. 특히

주거지는 많이 파괴되어 구조를 자세히 알기 어려우나 내부에서 전형적인 팽이형토기가 출토되어 널리 알려진 유적이다. 이중구연부에 사선문을 시문하고, 지름 3cm 내외의 아주 작은 저부를 가진 전형적인 팽이형토기유적은 대동강유역을 그 중심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분포밀도가 낮아지는데 삼거리유적은 그 남단에 해당하는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아. 혼암리유적

혼암리유적은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에 위치하며 연차적인 발굴을 통해 총 15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청동기시대의 탄화미가 발굴되어 주목받은 유적이다. 주거지는 장방형에 수혈식노지를 가진 형태로 미사리유적과 유사하다. 출토토기는 공열문과 사선문, 구순각목문이 단독, 또는 복합되어 시문된 토기들이 특징적인데 특히 공열문과 사선문이 결합된 토기는 동, 서북지역의 토기문화의 융합결과로 이해되면서 유적이름을 따라 혼암리식 토기로 설정되었으며 한반도 무문토기문화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혼암리의 무문토기는 이외에도 적색마연토기, 대형의 호형토기, 소형의 발, 완류 등이 일반적인 기종구성이다. 미사리와 함께 중부지역 전기후반을 대표하는 무문토기유적이다.

자. 연천 삼거리유적

연천 삼거리유적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에 위치하며 신석기시대 주거지와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소형수혈유구가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4기가 조사되었는데 모두 장방형이며 복수의 수혈식노지를 가진 형식이다. 출토토기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공열토기, 갈색마연장경호, 환형파수부토기, 호형토기 등이 있다. 이외에 적색마연토기 구연부편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토기양상은 일반적인 혼암리유형의 토기양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공열문이 밖에서 안으로 완전투공되어 있고, 공열문보다 이중구연토기(가락리식토기)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혼암리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외에도 경기도에는 많은 수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역삼동유형, 혼암리유형에 속하는 유적들이며 주거지 이외에 고인돌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앞에 소개한 유적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경기도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표 2> 및 <지도>와 같다.

2. 토기문화의 전개 및 특징

경기도 지역에서 알려진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약 10개소에 달하나 정식조사된 유적은 많지 않다. 조사된 유적의 대부분은 주거지나 고인돌로 주거지의 경우는 넓은 범위의 조사에 의해 취락의 전체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경기도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발굴조사만이 이루어졌다.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등을 통해 알려진 경기도 지역의 청동기시대 무문토기문화의 전개과정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기도지역의 무문토기문화는 현재로는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기무문토기문화는 가락동식토기문화, 역삼동식토기문화 및 혼암리식토기문화로 대표될 수 있고, 후기무문토기문화는 (원형)점토대토기문화로 대표될 수 있다. 점토대토기문화는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전기단계의 토기문화들이라 할 수 있다. 충청이남 지역에서는 혼암리식토기문화 다음 단계에 송국리식토기문화가 등장하고 뒤이어 점토대토기가 등장하고 있어 송국리식토기문화단계를 중기로, 점토대토기문화단계를 후기로 보기도 하고, 또는 초기철기시대의 점토대토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청동기시대만을 대상으로 하여 송국리식토기문화를 후기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에서는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는 한 송국리식토기문화는 분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기단계의 토기문화(역삼동식, 혼암리식)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송국리식토기단계의 경기지역의 토기문화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역삼동식토기나 혼암리식토기의 변화과정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돌대(각목)문 토기문화의 시간적 위치이다. 이 토기는 위의 전기단계 토기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며 이들이 사용한 주거지 형태도 공열토기나 팽이형토기 사용인과 구별된다. 이처럼 확연히 구별되는 돌대문토기문화의 시간적 위치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문토기의 가장 이른 단계로 파악하기도 하고, 전기단계토기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보기도 해 아직 편년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경기도 지역의 무문토기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남아있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자.

경기도지역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무문토기문화는 크게 보아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 혼암리유형, 돌대문토기(미사리)유형이다. 가락동유형은 이중구연부와 단사선문 등의 침선문이 결합된 토기로 대표되는데 대동강유역의 팽이형토기문화가 한강유역으로 확산되면서 변형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최근 가락동유형의 토기가 대동강이 아닌 압록강유역의 이중구연토기로부터

경기지역의 청동기시대 무문토기문화의 흐름은 이와 같은데 충청 이남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송국리유형의 토기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역삼동유형이나 혼암리유형의 존속 시기가 길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경기지역이나 충청이남지역 모두 다음 단계의 원형점토대토기는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양상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기지역의 무문토기문화 중 가락동유형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소멸하는 것으로 보이며 역삼동유형과 혼암리유형이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는 이들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송국리유형과 공존하는 시기의 경기지역의 무문토기문화의 구체적 양상을 밝히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과제이며 여기에는 돌대문토기유형의 시간적 위치에 대한 해결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의 무문토기문화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의 시대구분상 무문토기는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철기시대전기)에 걸쳐 사용되었던 토기문화로 지역적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한편 한반도, 특히 남한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특징을 가진 요소들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청동기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역별 전통이 강화되는 한편 집단 또는 문화의 이동이 빈번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무문토기문화에 대한 이해에 있어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는 경기지역의 토기문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